



# PRESTO

## WHITE PAPER

5. APR. 2018

<http://presto-platform.io/>

© 2018. Presto Developing Group. All rights reserved.



## 목차

### 1. 토큰 세일의 현황 및 문제점

### 2. 토큰 세일의 미래, PRESTO 플랫폼

- 2.1. 쉽고 빠른 클라우드 펀딩 개설
- 2.2. DAICO 모델 적용
- 2.3. 법적으로 안전한 토큰 세일

### 3. PRESTO 플랫폼의 구성

- 3.1. 토큰 세일 플랫폼
- 3.2. 토큰 마켓 플레이스
- 3.3. DEX (Decentralized Exchange)

### 4. PRESTO 토큰 분배

### 5. 프로젝트 로드맵

### 6. 기타 고려사항

### Reference

### Team Members

### Advisors



## 초록(ABSTRACT)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공개하고 현실화폐(Fiat Currency)나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이용해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이 등장했다. 이러한 자금 공모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 또는 도피하는 팀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성공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 PRESTO는 DAICO 모델[1]을 확장한 스마트 계약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자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 계약 및 토큰 개발, 그리고 판매 비용을 큰 폭으로 줄여 개발팀이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토큰 세일 플랫폼이다.

나아가 토큰 마켓 플레이스와 탈중앙화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 등을 도입하여, 토큰 세일 플랫폼을 넘어 신규 토큰을 인큐베이팅하고 기존 토큰을 엑셀러레이트하는 등 건전하고 활발한 토큰 세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PRESTO의 최종 목표이다.



## 1. 토큰 세일의 현황 및 문제점

토큰 세일은 블록체인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현금이나 더 환전성이 좋은 다른 암호화폐를 모으는 일종의 새로운 클라우드 펀딩 방식이다[2].

EY의 보고서를 보면, 토큰 세일의 규모는 불과 몇 개월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10월 ~11월의 2개월간 한화로 총 4조 600억(1074억/달러 기준)가량의 자금이 토큰 세일로 모금됐다. 토큰 세일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제도권 방식으로는 충분한 자금을 모을 수 없을 때 아주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BAT 코인을 발행한 Brave는 초당 116만 달러, 디센트럴랜드는 초당 83만 달러를 모집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기존 제도권의 공모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기록을 세웠다.

토큰 세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지나치게 난립하여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세일에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균적으로 성공적인 토큰 세일을 위해서는 개발비용 등으로 최소 약 5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절차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2017년 11월 1일 미국은 ICO는 증권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4], 2018년 2월 16일 스위스는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5]. 또한 규제당국은 돈세탁 등 토큰 세일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어서[6] 토큰 세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다.

현재 토큰 클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펀딩을 한 직후부터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토큰에 대한 구속력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토큰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개발팀이 양심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를 막연하게 바라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토큰 클라우드 펀딩은 개발팀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하며, 제도권과는 다르게 그 신뢰를 보장해주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없애고자 하는 (Trustless Institution) 블록체인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답게 신뢰가 필요없는 새로운 형태의 토큰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계약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번 배포되면 수정이 불가능한 특징 때문에 스마트 계약트는 1)안전한지, 2)효율적인지를 잘 판단하여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 계약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계약을 안전하게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사태[7]와 같이 토큰의 발행량이 달라지거나 소유자의 허락 없이 토큰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등 보안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2017년 11월 Polkadot 팀은 Parity Multi-Signature Wallet 의 스마트 계약트 결함으로 500K ETH 가량의 막대한 자금이 지갑에서 빠질 수 없는 상태로 영원히 동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젝트 진행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8].



스마트 계약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비효율적인 스마트 계약은 다량의 수수료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는 투자자와 개발팀 모두에게 투자 금액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배포된 스마트 계약 코드를 살펴보면 많은 개발팀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세탁 등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흥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청와대 청원의 답변에서[9]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이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라고 밝혔고 미국의 Jay Clayton SEC 수장도 "Their crypto currency activities are not undermining their anti-money laundering and know-your-customer obligations" [10]라는 우려를 밝히는 등,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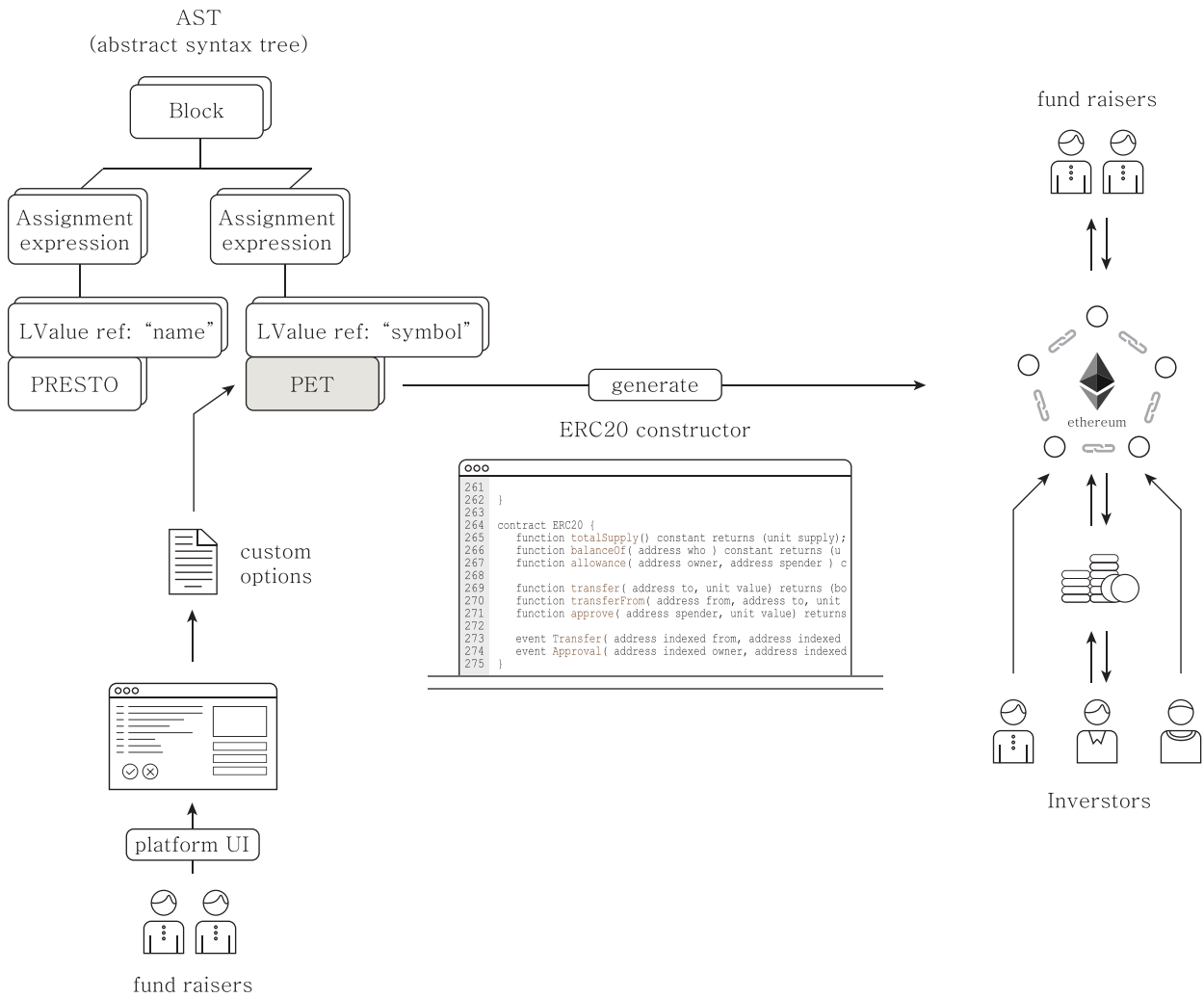
## 2. 토큰 세일의 미래, PRESTO 플랫폼

### 2.1. 쉽고 빠른 크라우드 펀딩 개설

대부분의 토큰 세일에 사용되는 토큰은 ERC20 스펙을 따르기 때문에 토큰의 이름, 발행량, 토큰 세일 기간, 프리 세일 보너스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며 토큰 생성을 위해 구현된 스마트 계약의 구조들이 서로 상당히 유사하다. 일부 개발팀들은 스마트 계약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고 안전해야 할 토큰 세일 스마트 계약을 안전하게 구현하지 못하거나, 또 그들이 만든 스마트 계약을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 만약 스마트 계약 코드의 공통적인 부분을 잘 추상화시킨다면 스마트 계약의 작성을 자동화해서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PRESTO 플랫폼은 개발팀이 원하는 토큰의 기본 정보를 폼으로 입력받아 자동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계약을 생성해준다[도1]. 개발팀들은 PRESTO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계약 자동 생성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껴 토큰 세일을 준비할 수 있다. 자동 생성된 스마트 계약은 PRESTO 플랫폼의 핵심 기술로 충분히 검증되고 효율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메인 프로젝트 개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PRESTO 는 코드 생성 뿐 아니라 간단한 웹 페이지 빌더도 제공해서 개발팀이 쉽게 블록체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세련된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웹 페이지 빌더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들과 같이 간단한 설정만으로 플랫폼에서 바로 연결되는 웹 페이지를 쉽게 만들어 간단한 조작으로 개발팀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편집할 수 있다. PRESTO 플랫폼은 이처럼 개발팀의 프로젝트 자체 외의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하고 단순화해 모든 개발력을 프로젝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도1] PRESTO platform, technical overview

## 2.2. DAICO 모델 적용

기존의 토큰 세일은 모금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개발팀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예치된 모든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문제와 그 위험성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Ethereum 의 창시자인 Vitalik Buterin 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월 DAICO라는 새로운 토큰 세일 모델을 제시하였다. DAICO에서는 토큰 세일로 모은 자금을 한 번에 전부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개발팀이 자금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인출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펀딩을 취소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인 자금을 투자자들이 환불받게 하기도 한다. PRESTO 에서도 이러한 DAICO 모델의 개념에 착안해서 보다 안전한 토큰 세일 방법을 제공한다.



PRESTO 플랫폼의 토큰 세일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토큰 판매로 모집된 모든 자금을 한번에 개발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토큰 세일 기간동안 모은 자금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토큰 세일이 끝났을 때부터 3년에 걸쳐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급 조건들은 토큰 세일이 시작되기 전 작성하는 스마트 계약 내용을 통해 상세히 설정될 수 있다. 이런 장치를 통해 개발팀은 의욕을 잃지 않고 계속 성실히 개발하게 될 것이며, 악의적인 스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PRESTO 플랫폼의 토큰 세일의 두 번째 기능은 개발팀이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때 스마트 계약에 묶여있는 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토큰 세일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개발팀이 토큰 세일 이후에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거나 모든 자금을 인출하고 잠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은 기존의 토큰 세일 스마트 계약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토큰 세일이 끝나면 모든 자금의 권한을 개발팀이 가져가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하든, 모든 자금을 인출하든 투자자들이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PRESTO 플랫폼의 토큰 세일에서는 만약 개발팀이 개발을 중단한다면 남아있는 자금은 투자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기존에 투자한 계좌주소로 반환받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스마트 계약의 오라클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현되는데, 현재의 대부분의 토큰 세일 스마트 계약들에서는 해당 기능 구현의 높은 난이도로 인해 대부분 이 방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Vitalik Buterin이 제시한 DAICO와 유사한 PRESTO의 토큰 세일 방식으로 기존의 불안하고 불투명했던 투자를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2.3. 법적으로 안전한 토큰 세일

돈 세탁 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와 고객 파악 제도(KYC: Know Your Customer)는 통상적으로 금융 기관이 고객의 대출 심사를 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OmiseGO[11], Qtum[12] 등 유명한 암호화폐들도 토큰 세일을 위해 해당 과정을 완료했다.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 과정이 개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우 번거롭다는 점 때문에 활발한 투자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PRESTO 플랫폼에서는 이를 쉽게 처리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여 다양한 Legal Compliance Platform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손쉽게 PRESTO에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AML, KYC 과정이 표준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큰 이점이 생긴다. 우선 해당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한번 AML, KYC과정을 통과한 사용자는 이후 다른 토큰 세일에 참여시 해당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 3. PRESTO 플랫폼의 구성

#### 3.1. 토큰 세일 플랫폼

PRESTO 토큰 세일 플랫폼은 토큰 세일을 안전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개발팀은 Ethereum 이나 PRESTO 토큰 없이 오직 아이디어만으로 새로운 토큰 세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토큰 세일에 참여하려면 PRESTO 토큰 또는 Ethereum을 준비해야 한다. 토큰 세일을 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웹페이지는 PRESTO에서 제공하는 기술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개발팀이 PRESTO 플랫폼에서 토큰 세일을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개발팀이 제시하는 프로젝트의 비전을 보고 토큰 세일에 참여할 수 있다.

토큰 세일은 크게 프리 세일과 메인 세일로 이루어진다. 프리 세일은 전체 토큰 세일 물량의 적은 비율을 미리 팔아서 초기 프로젝트 자금을 모으는데 사용된다. 토큰 발행량과 프리 세일 토큰 물량 등의 비율은 PRESTO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프리 세일은 PRESTO 토큰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메인 세일보다 더 많은 개발팀 토큰을 보너스로 준다. 메인 세일은 프리 세일 이후에 이루어지며 프리 세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 세일 물량 전체를 판매한다. 투자자 수, 판매된 토큰 양, 투자 받은 금액 등의 토큰 세일 진행 과정은 PRESTO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시 보드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 토큰 세일 기간동안 캡을 달성하여 판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투자자들은 PRESTO의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행되는 개발팀의 토큰을 투자자 각자의 지갑으로 지급 받게 된다. 개발팀은 프리 세일 모집 자금은 초기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로 인출 가능하지만 메인 세일 모집 자금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일정 기간동안 분할되어 지급된다. 토큰 세일 이후에는 개발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남아있는 자금, 입출금 기록들을 투자자들도 볼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자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 3.2. 토큰 마켓플레이스

새롭게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와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 모집 뿐만 아니라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PRESTO 플랫폼에서는 토큰 세일 과정뿐만 아니라 세일 이후에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찾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거나 기존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두 가지로 나뉜다. 블록체인은 다른 IT 기술들에는 없는, 현실 화폐(Fiat Currency)를 대체할 수 있다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개발팀이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취약점이 존재하면 그들의 모은 자금을 해킹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블록체인 주요 프로젝트들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다. PRESTO 플랫폼에서는 개발팀들이 토큰 세일에서 모금한 PRESTO 토큰을 이용해서 바운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개발팀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새로운 블록체인 구현 코드를 공개하면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공개된 코드에 결함이 있는지 리뷰를 할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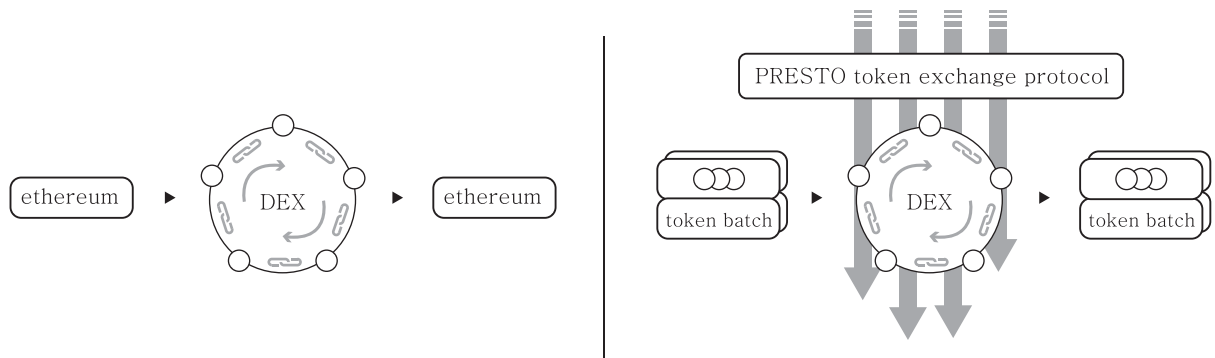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개발팀은 그에 따른 보상으로 PRESTO 토큰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적인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팀들은 더 안전한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의 기술이 견고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운티 프로그램 외에도 개발, 마케팅, 디자인등에서 필요한 리소스가 있다면 필요한 리소스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PRESTO 토큰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팀의 웹페이지에 들어갈 일러스트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PRESTO 마켓플레이스에서 요구사항과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시할 수 있다. 작업이 완료되면 블록체인 상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PRESTO 마켓플레이스는 토큰 세일 이후에도 개발팀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3.3. DEX (Decentralized Exchange : 탈중앙화거래소)

DEX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탈중앙화거래소이다. 신생 토큰들이 빠른 시간 내에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PRESTO에서 성공적으로 토큰 세일을 마친 토큰들이 PRESTO의 DEX에 상장하도록 도와 시중에 유통될 기회를 빠르게 얻도록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앙화 거래소(Centralized Exchange)는 블록체인이 아닌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을 이용하여 중앙화 데이터베이스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거래소 밖에 있는 사용자 혹은 거래소와 거래를 할 때만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UI/UX와 빠른 거래 속도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블록체인이 주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DEX는 중앙화 거래소와는 다르게 모든 동작이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속도가 느리고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보안적으로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PRESTO는 ERC20 표준을 확장한 새로운 토큰 교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여 기존의 DEX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DEX를 제공한다[도2].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PRESTO 토큰과 토큰 자동 생성기(Token Auto Generator)의 설계에 포함된다. 투자자들은 이런 거래 프로토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DEX를 이용해 토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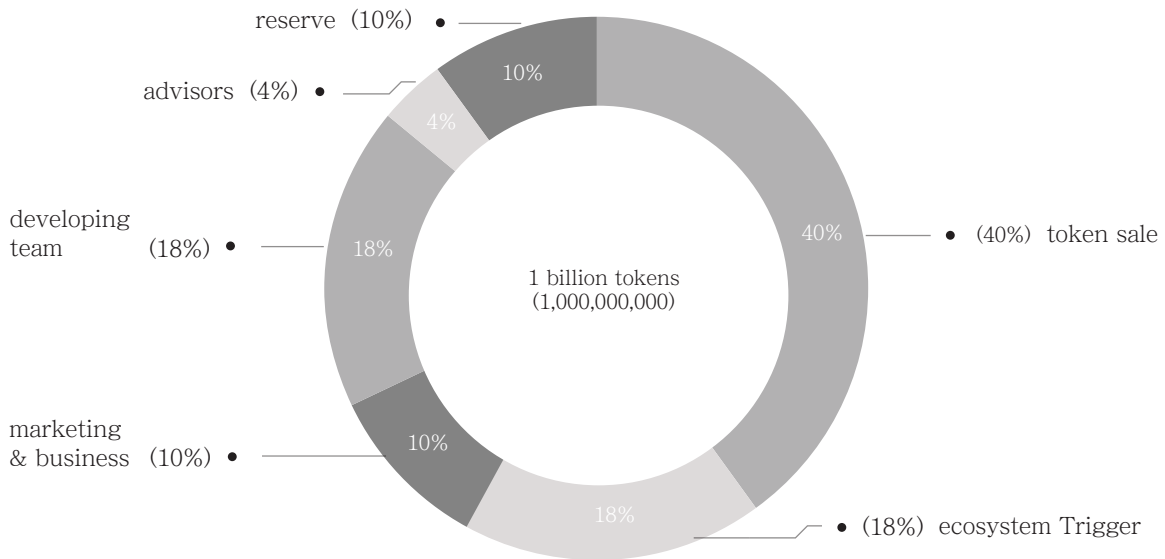
[도2] DEX(Decentralized Exchange) 설계도



#### 4. PRESTO 토큰 분배

PRESTO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RESTO 토큰(PRSTX)이 필요하다. PRESTO 토큰은 ERC20 토큰으로 발행되었으며 원활한 유통과 명확한 서비스를 위해 초기에 모든 물량이 발행된다. 토큰 중 최대 40%는 우선적으로 시장에 처분되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게 되며, 18%는 사업과 관련해 에코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마케팅과 사업 전개에 최대 10%까지 사용 가능하며 개발 팀과 어드바이저에게 각각 18%, 4%가 할당된다. 10%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문제를 하기 위해 회사에서 보유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도3].

PRESTO 플랫폼에서 토큰은 특정 세일에만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묶여있는 일 없이, 토큰 세일이 진행되는 동안 적당히 모였다 다시 시장으로 풀리는 자연스러운 유통 흐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세일 항목이 많아질수록 토큰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적고, 경제적으로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유통될수 있을 것이다.



[도3] PRESTO token distribution



## 5. 프로젝트 로드맵

PRESTO 개발팀은 2017년 2월 Light paper 를 시작으로 PRESTO 플랫폼 개발 여정을 시작한다. 2018년 3월에는 Light paper 에 제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White paper 를 공개함으로써 PRESTO 플랫폼의 청사진을 기술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여 2019년말 까지 PRESTO 토큰 세일 플랫폼, 토큰 마켓플레이스, DEX 를 차례대로 구현하고자한다. PRESTO 팀은 결함이 없고 안전한 기술이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각의 PRESTO 플랫폼들의 핵심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공개한 뒤 충분한 검증을 한 뒤에 실제 서비스로 런칭 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법을 따를 것이다. 첫 번째 공개할 플랫폼은 PRESTO 의 핵심 플랫폼인 토큰 세일 플랫폼이다. 토큰 세일 플랫폼의 핵심은 DAICO 모델을 변경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 생성기라고 볼 수 있다. 안전하고 검증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위해 2018년 3분기에 핵심 기술들을 공개하고 충분히 테스트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에 1분기에 첫번째 플랫폼인 토큰 세일 플랫폼 정식 버전을 공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토큰 마켓플레이스와 DEX 도 위와 같이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개해서 충분한 검증을 한 뒤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후의 플랫폼의 개발 계획은 웹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 6. 기타 고려사항

PRESTO light paper는 개발 계획과 비전에 대한 기술이며, 사업 내용에 대한 보증은 아니다. 사업 환경과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사업 진행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PRESTO 토큰은 light paper 에 기술된 용도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PRESTO Coin 은 증권이 아니며, PRESTO 토큰 의 소유자는 어떤 종류의 이익 배당이나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PRESTO 팀은 이 light paper 에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정확성을 진술 및 보증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사결정 등 행위에 있어서 이 light paper 를 이용한 경우 그에 따른 결과는 이익, 손해 여부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다.



## Reference

- [1] <https://www.coindesk.com/vitalik-new-idea-icos-tested/>
  - [2] <https://www.nytimes.com/2017/10/27/technology/what-is-an-initial-coin-offering.html>
  - [3] <https://www.sec.gov/news/public-statement/statement-potentially-unlawful-promotion-icos>
  - [4] <https://www.financemagnates.com/thought-leadership/much-money-need-launch-ico/>
  - [5]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VRJ4BEFE>
  - [6] <https://www.cnbc.com/2017/08/04/icos-may-be-seen-as-securities-by-u-s-and-singapore-regulators.html>
  - [7] <https://www.coindesk.com/understanding-dao-hack-journalists>
  - [8] <https://blog.springrole.com/parity-multi-sig-wallets-funds-frozen-explained-768ac072763c>
  - [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35589>
  - [10] Testimony on “Virtual Currencies  
: The Oversight Role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11] <https://cdn.omise.co/omg/whitepaper.pdf>
  - [12] <https://qtum.org/en/blog/qtum-crowdsale-update-timeline>
- \*모든 웹의 자료는 2018.02.26에 게재된 내용 기준입니다.



## Team Members

**Kyung Won Kang**

**CEO and Co-Founder**

Formerly Pople CTO

Formerly Neople Client Developer & Part Manager

Released Indie Game "Cross Set" "Cross Set Infinity" on Steam™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Mathematical Sciences)

**Kyle Bae**

**Global Strategy Manager**

Formerly Doil Trading Corp., Director of Overseas Manager

Formerly Investment Visa Consultant

Formerly Huatai Property Company

Seoul National University (M.S in International Sports Management)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Wonse Kim**

**Developer**

Python, C++ Developer

Mathematics Technology Laboratory Researche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cialized in Data Analysis Using R, MATLAB and Published 3 SSCI Pap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in Mathematical Sciences)

**Chang Woo Choi**

**Business Strategy Manager**

Qualified as Patent Attorney in South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